

특필기고①



김민식  
광주동광교회원로목사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시이다.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해 본다.

‘무대에 있을 땐 모르네  
무대에서 내려와서 본  
그 무대...’

은퇴해서 바라보는 강단과 목회와 교회와 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면서 매일 매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정현종 시인의 시에 이런 시가 있다.

〈모든 순간 이 꽃 봉우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종락)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우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우리인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우리라고 고백하고 싶다.

난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김혜자 씨의 ‘생애 감사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받으면 피어나는 꽃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고 모든 순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다.

현역으로 목회를 하고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아름답게 꽃 피우고 아름답게 은퇴하시기를

사실이다. 빨강꽃, 파랑꽃, 노랑꽃, 분홍꽃...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말이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 안에 어머머마한 꽃들이 숨어 아 있는 데 그 꽃을 피워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그 믿음의 씨앗 속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피워내는 것이다.

우리의 매 순간이 아름다운 꽃 봉우리 아닌 때가 없다. 피워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순간이 꽃 봉우리인데 그때 왜 꽃 봉우리를 피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결국은 믿음이고 믿음의 눈이요.

믿음이 작은 연고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꽃으로 피워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다.

은퇴 후에 더 많은 깨달음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령 내가 은퇴한 후 광주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할까?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 의로움과 겸손함과 무료함 속에서 아마 죽음만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조그만 밭을 사서 진마루 밭이란 이름으로 밭을 일구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꽃을 심고 살아간다.

“괴로웠지만 행복한 목사”

인들이 더 잘 보인다.

요사이도 많은 후배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내쫓기는 목사들이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들이 학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설교를 못 해서도 아니다.

단지 경험의 부족 속에 성급하게 서둘다가 실수하고 만다.

목회는 한 번 실수하면 만회할 기회가 없다. 목회 현장에서 내쫓겨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요사이 읽고 있는 책이 김혜자 씨의 “생애 감사해”라는 책이다.

나는 목회를 할 때 건지기 힘들고 괴로웠지만, 너무나 행복한 은퇴를 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만큼 법적인 송사에 시달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 노회, 총회...그리고 구청, 진정 등으로 165번의 송사를 경험한 목사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은퇴를 하였다.

“괴로웠지만 행복한 목사”라는 제목의 책이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러나 나같이 행복하게 은퇴한 목사도 드물 것이다.

당회에서, 또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를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었고, 그리고 은퇴 시 노후에 살아갈 은퇴비를 교회에서 충분히 예우해 주었다.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나는 40년 목회 사역을 마친 후 은퇴하고 꿈에도 있을 수 없는 고향을 떠나서 경상도 웅양면 진마루란 마을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내가 은퇴를 하면서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의 말씀이 다가왔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3:30)

이제 모든 소프트 라이트는 후임 목사에게 맞춰져야 한다.

왜? 나에게 맞춰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가 은퇴를 앞두고 원로목사로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후임 목사에게 목회의 거침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광주를 떠나 살기 위해서 스물다섯 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창 웅양면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마침 그곳에 내가 살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곳에 와서 조그만 밭을 사고 진마루 밭이란 이름으로 밭을 일구어 꽃을 키우면서 남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올해 백일홍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었는데 다 지고 씨를 받으면서 알았다.

그 작은 조그만 씨 속에 지난 여름에 정말 아름답게 피었던 백일홍 꽃들이 숨어 있다는

이제 일 년이 되었는데 봄이 기다려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기다려지고 매일 매일 감동으로 하루가 다가온다.

꽃피우기 위해서 말이다.

내가 이 마을에 이사를 와서 진마루 밭 옆에 있는 제방 위에서 누워 하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내 유년시절 우리 집이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어릴 적, 해질 무렵 과수원 잔디에 누워서 바라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짐으로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목회 사역에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다.

그러한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곳 제방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년 시절의 행복을 다시 찾았다.

나의 고향의 과수원이 소환되고, 꽃피는 산골이 소환되고 빠꾸기 울 때 어머니와 손잡고 내려올 때의 기억, 쟁기질하던 나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다시 소환하여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별 볼일 없이 도시에서 살다가 이곳 밤하늘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본다는 것.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이것이 용연학교다

-학생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마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용연학교의 문을 두드린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힘들고 지친 학생들을 안고 출항한 용연학교는 대안학교라는 용어 대신에

모든 학생을 품어주는 ‘따뜻한 학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포근한 학교’,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꿈이 있는 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 모두는

여러분께 더욱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날마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는 함께 힘 들어 할 것이며,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는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몇 가지 수학 공식보다는 ‘관심’이 더 필요하고

몇 개의 영어 단어보다는 ‘친참’이 더 자랑분임을 알기에

성적이나 빈부로 편애함이 없이

오직 따뜻한 가슴으로 대할 것을

오늘 개교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22

용연학교 교직원 일동

\*월급이랄 것도 없는 거의 봉사 차원에서 함께 헌신하신 초창기 선생님들은 개교기념식에서 이렇게 다짐하며 학생들을 맞이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학교

“저는 용연학교가 광주에서 가장 큰 중학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학교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연학교 학생들과 故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용연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공부해 90%가 넘는 진학률을 자랑할 정도로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2011. 4. 30. 이희호 여사 용연학교 방문 강연 중에서)

\*이희호 여사는 2011년 4월 30일 용연학교를 방문하여 재학생과 수많은 광주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e.or.kr



합동루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입니다. 합동개혁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신학의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를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과정별                  | 모집학과      | 모집정원 | 응시자격                                                                          |
|----------------------|-----------|------|-------------------------------------------------------------------------------|
| 신학부<br>(졸업후 진도사 사역)  | 신학과(주,야)  | 00명  | 남·여 세례받은 자                                                                    |
|                      | 목회학과(주,야) | 00명  | 남·여 세례받은 자<br>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
| 신학연구원<br>(졸업후 목사 안수) | 주·야간반     | 00명  |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br>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br>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br>서울 남한총신에서 주관함. |
| 학술원                  | 목회학과      | 00명  |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수시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총회신학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